

제목: 나의 이야기를 다시 쓰신 하나님

- 내러티브 코칭으로 걸어온 은혜의 시간들

글: 김여나

1. 부르심의 시작, 퍼즐처럼 맞춰진 은혜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집니다.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것도, 그 아이가 임신 기간에 건강하지 못했던 것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한 청년이 나를 찾아오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코칭을 할 수 밖에 없던 것도 —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예비된 길이었습니다.

결혼이 늦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생긴 아이를 병원에서 “다운증후군 확률이 높다”고 진단받았을 때, 나는 무너졌습니다. 원해서 가진 아이였지만, 내가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이 생기기를 위해.

그날,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드렸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내 인생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약속은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 살기’라는 코칭 모임을 만들게 된 원천이 되었고, 이후 제가 삶의 방향을 잃을 때마다 붙잡아주는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늘 노력하고, 참고, 기대에 부응하려 애써온 삶이었습니다. 딸로, 아내로, 엄마로, 회사원으로, 사회적으로는 잘 살아온 사람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겉으론 멀쩡하지만 속은 허전하고 공허한 삶. 주어진 역할을 해내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는 포상기태 임신이라는 다소 특이한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도 어렵고, 산모도 매우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찾아왔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나는 일주일 만에 수술대에 누워서 소파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쉽게 아이를 갖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임신을 하게 된 것일까? 잠시 찾아왔던 아이였지만 나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심한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울면서 하루를 보냈고, 당시 10 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내 마음과 몸은 날로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누워서 하루를 보낸 어느 날 “내가 언제 행복했더라……” “내 인생에 즐거웠던 때는 언제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 졸업을 하자마자 일본으로 유학 갔던 그 1년이 나에게서 최고의 해라고 말할 만큼 즐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일본에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이유만으로 용기 냈던 그때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살기”라는 이름으로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 살기’라는 이름으로 나를 다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생소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할 때, 사실 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삭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음에 “그래, 이제 시작해보자”라고 대답하시는 듯,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지 어떻게 모임을 이끌고 나아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나는 자기계발을 위해 책을 많이 읽었는데,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찾아서 읽다 보니 결국 이 책들의 모토는 성경에서 나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과 함께 성경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모임을 할 때가 3년차가 되었을 쯤이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가르쳐 준 것을 모토로 해서 모임을 만들고 운영했습니다. 처음 내가 글을 올렸을 때, 100여명의 사람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내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1년동안 같이 해보는 것. 1년이라는 시간은 길다면 길 수 있지만, 변화와 성장하기 딱 좋은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분명 실패도 있을 것이고 좌절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시간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모임을 아침 조찬 모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이라 모임은 당연히 오프모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침 9시 강남역. 회비 5만원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그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시간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1년을 완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조건을 거니 20명의 사람들이 남았고, 나는 이들과 1년을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모임은 소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아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할 수 있을 지가 궁금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달랐지만 공통점은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와 성장을 원하지만,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에서 나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2. 진짜 나로 말하기 시작하다 - 그리고 복음과 코칭이 스며드는 순간들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 살기' 모임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상처로 멀어진 상태였으며, 또 누군가는 처음으로 '신앙 있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본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모임의 첫 나눔 시간, 저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완벽해 보이기 위해 살아왔고, 실패나 약함은 감춰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나눔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겉도는 기도 제목만 나누는 듯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을 때, 이 곳을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들어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고 그것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달 2~3명씩 자신의 인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상처, 결혼 생활의 아픔, 현재의 외로움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힘듦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려고 했던 이야기, 또 다시 좌절했던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며, 고생이라곤 해본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아주 평범하지만 아주 비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고, 우리는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삶도 헛된 삶이 없었고, 어떤 경험도 헛된 경험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늘 앞에서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하는 줄 알았던 저도 다른 사람들의 용기 있는 고백을 들으며,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제 인생의 상처를 처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픔, 회사에서 좌절했던 순간, 아내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무기력함을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쏟아졌고, 듣는 분들도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전 교회에 대해 항상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다는 걸요. 힘든 일은 다 똑같이 발생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들음을 대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 번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삶으로 보여준 복음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사랑의 나눔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며, 점차 마음이 열리고, 기도에 동참하며, 하나님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진짜 나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도요.

이러한 나눔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삶을 나누는 방식을 내려티브 코칭의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내려티브 코칭은 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내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해석하며,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평가하지 않고 귀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임은 점차 어떤 이야기라도 꺼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간증이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숨기고 싶은 나’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3.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 내려놓음에서 시작된 역사

모임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수록 제 마음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 ‘사람들이 만족해야 한다’, ‘내가 이끌어 가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 속으로 “올

해가 마지막이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며 더 잘 하지 못할 것이기에 박수칠 때 떠나자는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코칭 모임을 하면서 저에게는 정말로 많은 간증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이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와 성장 되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받는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느낍니다.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기도 중에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모임을 이끌만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 그만해도 되겠지요?” 그때 주님은 제 마음에 조용히 말씀하시는 듯했습니다. “이 모임은 네 것이 아니다. 내가 시작했으니 내가 이끌 것이다.”

그 후 저는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로서 앞장서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 사람의 장점(은사)을 발견하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한번 해보라며 부추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못한다고 뒤로 빼던 사람들이 권유에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것 같더니,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짝거리는 눈으로 바라보며, 진정성 있는 경청과 지지, 응원에 힘입어 잘 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공동체는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 또 다른 이의 열정을 불러일으키셨고, 그 열정은 공동체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리더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과 공동체를 맡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4. 함께 이룬 작은 기적들 - 자발성과 연대의 은혜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 살기’ 라는 코칭 모임이 해를 거듭하며 성장해갈수록, 저는 점점 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처음에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이가 어느 순간 중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북콘서트는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전문 연출가도 없고, 행사 기획 경험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단순한 제안 하나에, 여러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발표했던 삶을 글로 남기고, 출판 제안을 만들어 여러 출판사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경력단절 되기 전에 디자인을 했던 멤버는 굿즈를 제작하기도 했고, 누군가는 콘서트 장소를 섭외했고, 누군가는 홍보를 맡았으며, 또 다른 이는 자녀를 재운 후 밤늦게까지 영상 편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모인 정성과 열정이 하나의 생생한 결과물로 탄생했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믿음이 없던 분들까지도 이 과정을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지만, 그래도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뭔가 기여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코칭 모임이 단지 사람 간의 연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공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움직임 속에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 감동이 전해지고, 또 그 감동이 다른 이의 손과 발이 되어 흘러가는 것을 보며 ‘연대’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연대란 억지로 엮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아름답다’는 깨달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공동체란 내가 빛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서로가 빛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코 제 힘으로는 만들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연결하시고,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옆에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매일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5.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 내러티브 코칭과 순종의 여정

모임을 이끌며 가장 많이 들은 고백 중 하나는 “전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백을 한 분들이 나중에는 모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거나,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이 모임을 통해 수없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발표를 해본 적도 없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집 안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듣는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분 자신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자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나눔의 중심에는 ‘내러티브 코칭’이라는 접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조언이 아닌, 각자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그것을 함께 해석하고, 다시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야기 안에 담긴 삶의 고통, 질문,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흔적들을 함께 마주할 때,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어주었습니다. 이 코칭의 방식은 참여자 각자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중 받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직관적으로 시작한 내러티브 코칭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저 스스로도 코칭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임의 한 멤버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깊은 슬픔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고, 그저 곁에서 함께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칭의 어떤 기술도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현실 앞에서 제 한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사람의 깊은 고통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날 이후 저는 단지 코칭 스킬만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를 품을 수 있는 깊이를 배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코칭 스킬은 늘어갔지만, 어느 순간 깊이가 부족하다는 갈급함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닌, 더 깊이 있는 성찰과 영적 통찰을 나눌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곳이 바로 WMU(World Mission University) 박사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감히 내가 갈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도 끝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배움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부르심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부르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자격을 갖추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 살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바로 그런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그저 따라가 봐야지’ 하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완벽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 있고, 부족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기대어 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더욱 진실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은 토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사실 앞에서 저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나약함이 오히려 당신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6. 새로운 시작을 향해 - 소명으로부터 다시 시작되는 1년

‘1년 살기’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제 삶의 전환을 위한 작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이 코칭 모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 되었고, 저 자신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단지 좋은 모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실현되는 장면을 매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WMU 박사과정에서 이제 논문만을 남겨 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지난 9년간의 여정을 되짚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단지 모임의 리더가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코치’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와 성장을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저 또한 매 순간 성장해 왔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졸업을 앞두고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지만 이 글을 쓰며 지금까지 저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되돌아보니, 앞으로의 길 또한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지금껏 한 걸음씩 인도해 주셨듯이, 졸업 이후의 길도 그분의 섬세한 인도하심 아래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내러티브 코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칭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가 또 다른 공동체로, 또 다른 이야기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했던 모든 고백과 눈물,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있는 지식과 성찰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더욱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살아가며,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다음 1년을 향한 고백이자, 소명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다시없을 1년 살기’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저 제 삶의 전환을 위한 작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역이 되었고, 저 자신도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단지 좋은 코칭 모임 하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실현되는 장면을 매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출발선에 서 있다는 마음이 듭니다. WMU에서의 박사과정은 단지 저의 학문적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울 수 있는 마음의 깊이를 넓히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는 내러티브 코칭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코칭 모임을 통해 받은 은혜가 또 다른 공동체로, 또 다른 이야기로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했던 모든 고백과 눈물, 그리고 새롭게 배우고 있는 지식과 성찰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더욱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간증으로 살아가며,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다음 1년을 향한 고백이자, 소명입니다. 다시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